

# 진도해역 '새우 전쟁'

신안 어선들 진출...수년째 조업 분쟁

신안 연근해자망(닻자망)과 진도 새우조망 어업인간에 조업분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동성 어업인 닻자망 어선들이 연안 어족지원 감소로 주 조업해역이던 신안·영광지역에서 진도해역까지 진출해 '젓새우'를 잡음에 따라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주변 등에 어구를 설치해 '그라비' 새우(일명 꽂새우)를 어획하는 지역 어업인들과 조업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9월 진도군 새우조망협회(회장 김영욱)과 닻자망협회인 '목포신안 새어민회'(회장 김인석)는 매년 10월 20~12월 31일 만 조업한 후 어망과 어구를 철거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새어민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닻자망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데다 폐어망·어구를 방치함으로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새어민회는 일부 비회원들의 무분별한 조업에 대해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계남 진도 새우조망협회 사무국장은 "닻자망 어민들이 새우조망 어업을 하는 곳에 그물을 고정시켜 젓새우를 포획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양해각서 내용대로 진도 꽂새우 어업수역 4분의 1 지점에서만 조업하고, 젓새우철이 지나면 어장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인석 목포신안 새어민회 회장은

"새우조망 구획어업 허가지역을 타 어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표를 설치하는 등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며 "새우조망은 연승어업과 연계되는 어업이나 민족 조업시기 이외에는 닻자망도 조업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도·신안 어민간 분쟁은 지난 3월부터 서해어업 조정위원회 신규 앙간으로 상정돼 수산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4일 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새우조망어업관련 조업분쟁 조정협의회를 열어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방향을 토의할 예정이다.

한편 새어민회는 목포·신안·영광군 닻자망 어업인 180명(선박 213척)이 결성한 자생단체로 가을에 젓새우를 주로 잡는다. 진도 새우조망 구획 어업 허가건수는 58건으로 연간 3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박현영·이상선기자

## 목포대 학생들 용돈 모아 발전기금 기부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쟁시일반 용돈을 모아 발전기금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자치회장 박혜석) '관생자치위원회'는 최근 대학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학교측에

200만원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최근 열린 '제 25회 사자 바위 축제' 때 '우리대학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았다.

또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들

해솔'(회장 정창신) 11명도 축제기간 동안 음료를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고석규 총장은 "공부하기 바쁜 와중에도 발전기금을 기부한 학생들의 크나큰 학교 사랑을 잊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학생들이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진도 갯벌습지를 지키자

### 그린 진도21 정회활동·환경교육

그린 진도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김남중)는 최근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대에 위치한 진도갯벌습지 보호구역에서 정회활동과 함께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도와 진도군·녹색 전남21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정회활동은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갯벌 인근 뚜방과 주변 도로가에 방치된 폐스티로폼과 생활쓰레기, 그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거했다. <사진>

진도갯벌은 지난 2002년 144㎢ 규모의 면적의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과거에 갯벌이었지만 방조제로 막아 농지로 만든 뒤에 다시 자연적으로 갯벌이



형성됐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이어 진행된 환경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녹색전남21' 이일호 감사는 "진도지역 갯벌은 간척 활동으로 현재 여러 개의 작은 갯벌이 산재해 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하고 주민들의 생활형 어업이 활발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토지 매매

###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화장, 확정)

###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6245-5585

전 국

싼

팔 분

1천만 ~ 10억  
즉 시  
계 약  
물물교환도 활용

금산공인중개사

T. 081-5688 H. 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삼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4면 광장면)  
■ 대지면적: 약 2,4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령면  
칠령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첨유 910㎡  
■ 특징  
-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 도로겸용 허가 특  
- 미분양에서 광주상행 첫주유소부지  
- 2011년 6월 완공 칠령농공단지앞  
유일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매월등 자연녹지 매매

- 면적 : 약 3,870㎡
- 단 가 : 평당 200만원
- 위 치 : 매월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대로변
- 빌리, 가든, 전원주택  
최적화
- 지가 급등지역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별한 '큰 놈'

아내가 개별한 큰놈이 인기폭

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크면 살

방이 크듯 큰 가대를 걸고 이것

저것을 고가로 사서 사용해 보

았으나 사용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아까운 들판에 버려

지고 허탕감 속에서 불신임만

쌓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

서 큰놈을 보고자 대로보기 놀

랑 가슴 속두정 보고 놀랄 듯이

혹시나 하고 이번에도 빙신방의

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

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

었으며 사용즉시 블끈 일어서며

장시간 지속되니 끔인지 생시인지

청춘으로 돌아간 듯 뛰듯 활

을 느낀다. (할기부전 개선을 위

한 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

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 하여도 피부같은 촉감에

99,000원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통신판매 신고증 제II88호)

G-FLOW  
1588-4102  
010-8558-4114  
010-8558-4114  
농협 301-0036-8883-71 예금주: 글로벌 핫나경  
www.hottana.kr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에 위치한  
500년 전통의 고백인 녹우당(사적  
제167호) 안뜰에서 국악공연이 펼  
쳐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진>

남도 국립국악원은 최근 '뜨락에  
서 자연을 듣다'라는 주제로 600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평조회상', '춘  
향가' 등 전통국악 거문고 산조 선  
율을 들려줬다.

6월에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녹우당 고택을 방문하면 다양한 분  
야의 국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오는 5일에는 대금산조가 연주되며  
12일에는 가야금 산조, 26일에는  
아쟁산조 공연이 예정돼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한옥과 국악이  
어우러져 색다른 풍류의 멋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국악애호가 및 관광  
객들에게 우리의 전통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dia@

녹우당은 고산 윤선도(1587~  
1671)의 4대조인 어조은 윤효정대

에 지어진 고택으로 조선시대 양반  
가와 선비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곳  
이다.

고산 윤선도 선생이 '고산유금'  
(孤山遺琴)을 직접 제작하는 등 거  
문고와도 매우 인연이 깊은 곳이기  
도 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한옥과 국악이  
어우러져 색다른 풍류의 멋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며 "국악애호가 및 관광  
객들에게 우리의 전통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dia@

## 남도의 멋...500년 고택과 거문고 선율의 어울림

남도 국립국악원 해남 녹우당서 국악공연



## 농가 경영회생자금 17억원 지원

### 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연말까지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는 농업  
재해나 부채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농가에게 경영정상화 자금 17억  
원을 지원한다.

5월 현재 관내 농업인 7명이 10억  
원을 신청해 자금지원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로 신청  
을 받아 올해 말까지 전체 예산을 집행  
할 계획이다.

오영록 지사장은 "농가 경영회생  
사업은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  
여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등 여러 측면에서 과다한 부채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 경영회생 사업은 농업재해 또  
는 부채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  
하고, 그 농지를 다시 입찰해 영농하  
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되살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조건은 희망농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으로서, 금융기  
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  
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무럭무럭 자라거라

지난달 31일 진도읍 포산리 놀이터에서 주민들이 어  
린 대파를 옮겨심고 있다. 대파는 헐떡의 흐름을 원  
활히 하는 작용을 한다.

/진도=위탁농기자 jwi@

